

새하얀 아름다운 백자 이야기

이 안내서는 인솔 교사 또는 보호자를 위한 자료입니다.
어린이가 감상활동지를 활용하여 전시품을 충분히 관찰하고,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사전·사후 학습 영상 추천
[국립중앙박물관×EBS]
똑똑 문화재 박사 '달항아리'편



도자기

도자기는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으로 '도기'와 '자기'를 합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자기'를 가리켜 도자기라고 부릅니다.
자기(청자, 백자 등)는 유약을 입혀 1200도 이상에서 구운 그릇으로
낮은 온도에서 굽는 도기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과 시설이 필요합니다.

백자 (白磁)

흰색 흙으로 빚은 그릇에 투명한 유약을 입혀 1300도가 넘는 온도에서
구워 낸 도자기입니다.
조선 백자는 매우 희고 단단하며, 단아한 형태와 너그러운 곡선이 아름답습니다.
조선은 유교적 이상을 담은 백자를 만들기 위해 수도인 한양 부근의 경기도 광주에
국영 도자기 제작소를 세웠습니다.
백자 생산을 나라에서 관리하는 관요(官窯) 체제가 확립되면서
왕실과 관청에 백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이후 백자는 조선시대 최고의 자기가 되었습니다.

활동

어린이가 순백자를 자세히 감상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세요.

- 4개가 한 세트인 사발 굽 안바닥에는 무슨 글씨가 새겨져 있나요?
- 달항아리는 두 개의 그릇을 이어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접합 흔적을 찾아보세요!
- 백자 표면은 왜 유리처럼 반짝이고 매끄럽게 보일까요?
- '백자 병'을 감상하고 그 형태와 보이는 색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순백자

무늬를 전혀 넣지 않은 백자를 순백자라고 합니다. 무늬가 없어서 곡선과 백색의 아름다움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순백자는 흰색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마다 색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백자의 색은 우윳빛이 나는 유백, 회색이 도는 회백, 흰 눈과 같은 설백, 푸른 기를 띤 청백 등으로 부릅니다.



백자 병

순백 표면에 은은하고 푸른빛 광택이 어우러진 백자 병입니다.
나팔 모양의 입구에 부드러운 곡선과 풍만한 몸체,
단정하게 깎인 굽이 돋보입니다.

눈부시게 하얀 유색을 띤 단정한 형태의 사발로 4개가 한 세트
입니다. 측면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아래로 내려가 굽으로
이어집니다.



'천(天), 지(地), 현(玄), 황(黃)'을 새긴 발



백자 항아리

푸른빛이 감도는 흰색 항아리입니다.
바깥으로 말린 입술과 둥글게 부푼 어깨는 전형적인 15~16세기
백자 항아리 형태입니다.

예시 답안

① 좋은 백자를 표시하는 기호/ 백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 백자를 잘 관리하기 위해

* 정답이 정해진 것은 아니니 어린이가 관찰하고 생각한 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도움글

조선 전기 경기도 광주의 왕실용 백자 가마에서 생산된 백자 가운데 바닥면에 '천(天)', '지(地)', '현(玄)', '황(黃)'을 새긴 예들이 있습니다. 제작과정에서 유약을 씌우고 난 후 조각칼의 칼날을 뉘어 넓게 긁어내어 표현했습니다.

'천(天)', '지(地)', '현(玄)', '황(黃)'은 조선 초부터 마치 오늘날의 숫자나 알파벳처럼 쓰던 기호였는데 이러한 표시가 있는 백자는 대부분 좋은 흰색을 지니고 생김새도 반듯합니다. 주로 경기도 광주에서 15세기 후반 ~ 16세기 전반까지 만들어 졌습니다.

② 두 개의 그릇을 이어 붙여서 만들어서

* 어린이가 감상활동지 [더 알아봐요!]를 참고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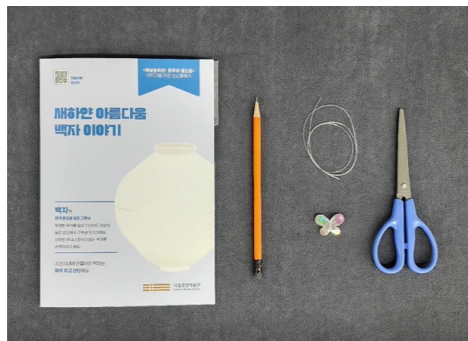
도움글

달항아리는 물레질로 단번에 뽑아 올리기에 너무 커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따로 만들어 이어 붙였습니다.

가마 안에서 구울 때 이어 붙인 부분이 갈라지거나 뒤틀리는 경우가 많아 원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달항아리도 좌우가 대칭되지 않고 약간 이지러진 모습을 보입니다.

③ * 정보 무늬(QR 코드)를 참고하여 백자 모빌을 만들어 보세요.



준비물



완성된 모습

조선 왕실의 그릇이 된 백자

조선 왕실은 백자가 청렴하고 검소하다고 생각해 왕실에서 사용하는 그릇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우수한 백자를 만들기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도자기 제작소를 세웠어요. 이곳에서 생산한 품질 좋은 백자 바닥에는 '천(天), 지(地), 현(玄), 황(黃)' 등을 새긴 표시가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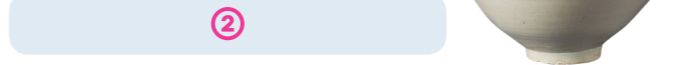
그릇에 '天(천), 地(지), 玄(현), 黃(황)'을 왜 새겨넣었을까요?



자연을 닮은 달항아리

달항아리는 높이 40cm가 넘는 대형 항아리예요. 조선 후기에 제작되었어요. 풍만하고 둥근 생김새가 보름달 같아서 1950년대에 '달항아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자세히 보니 조금 찌그러져 있네요. 왜 그럴까요?



더 알아봐요!

달항아리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크기가 같은 그릇을 만들어요.

두 개의 그릇을 위아래로 이어 붙여서 가마에 구워요.

유약을 발라 한번 더 구워요.

다양한 생김새의 백자

조선시대 도자기는 생김새에 따라 병, 사발(발), 항아리 등 부르는 이름이 달랐어요.

[병]

백자 병

조선 15~16세기
높이 34cm

좁고 기다란 목에
둥근 몸체를 가진 병이에요.
병은 물이나 술 등을 담는
그릇이에요.



[사발(발)]

'天(천), 地(지), 玄(현), 黃(황)'을 새긴

백자 발

조선 15~16세기
높이 11.3cm(원쪽)
국보 | 이천희 기증

입이 살짝 밖으로 벌어지고 아무런 장식이 없는
순백자예요. 발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편한
그릇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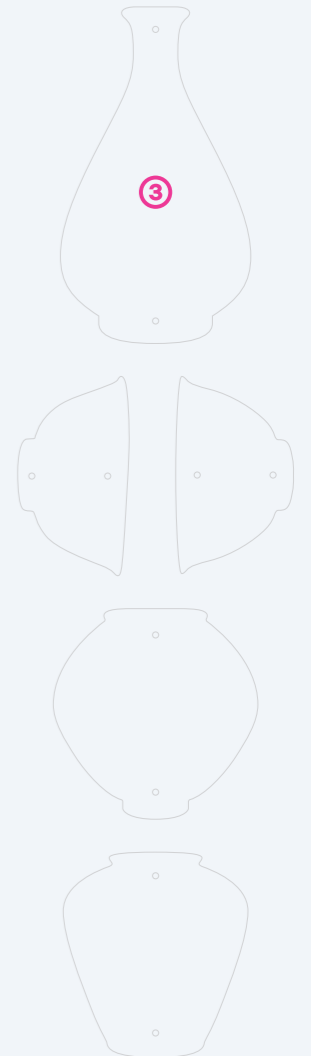


[항아리]

백자 항아리

조선 15~16세기
높이 31.6cm

어깨가 둥글게 부푼 항아리
예요. 맑고 깨끗한 흰색으로
왕실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해요.



달항아리

높이 40cm 이상의 대형 항아리로 조선 17세기 후반 무렵에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백자에서만 볼 수 있는 기형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백항(白缸), 백대항(白大缸), 백대원항(白大圓缸) 등으로 불렸습니다.

순백의 둥근 항아리는 표면에 아무런 문양이 없지만 단정함이 주는 여유로움이 높은 품격을 자아냅니다.

생김새가 둥근 보름달을 연상시켜 20세기에 와서 '달항아리'라는 애칭이 붙었습니다.

지평선 위에 항아리가 둥그렇게 앉아 있다.
굽이 좁다 못해 동실 떠 있다.
둥근 하늘과 둥근 항아리와
푸른 하늘과 흰 항아리와
틀림없이 한 쌍이다.
똑
닭이 알을 낳듯이
사람의 손에서 쏙 빠진 항아리다.

김환기(1913-1974) 이조 항아리